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1):105-111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관계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¹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²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³ 계요정신건강병원 임상심리과,⁴ 새조위⁵

한나영¹ · 이소희¹ · 유소영¹ · 김석주² · 전진용³ · 원성두⁴ · 신미녀⁵

Predictors of PTS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Visited Psychiatric Depar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reatment Center

Na Young Han, MD¹, So Hee Lee, MD, PhD¹, So Young Yoo, MD, PhD¹,
Seog Ju Kim, MD, PhD², Jin Yong Jun, MD³,
Sung Doo Won, MA⁴, and Mi Nyeo Shin, PhD⁵

¹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Keyo Hospital, Uiwang, Korea

⁵Saejowi, Seoul, Korea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consulted psychiatric clinics.

Methods A total of 66 North Korean refugees who consulted a psychiatric clinic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 psychiatrist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and PTSD was diagnosed using the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The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was evaluated us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

Results Thirty five (53%) were diagnosed with PTSD.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show association with understanding the language in South Korea, difficulty interacting with South Koreans, and experience or feeling of neglect. Quality of life of the PTSD group was lower than in the Non-PTSD group. Difficulty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was also higher in the PTSD group. Experience or feeling of neglec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in the PTSD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in providing a specific direction for psychiatric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adaptation to life in South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1):105-111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Quality of life · Adjustment in South Korea · Refugee mental health.

Received May 29, 2014
Revised July 10, 2014
Accepted December 4, 2014

Address for correspondence

So Hee Le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245 Eulji-ro, Jung-gu,
Seoul 100-799, Korea
Tel +82-2-2260-7311
Fax +82-2-2268-5028
E-mail psyhee@hanmail.net

서 론

1998년 71명에 불과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한해 총 2737명이 입국하였고, 2014년 3월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6483명에 달하였다.¹⁾ 현재 중국 등 제3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까지 한국으로 유입될 것을 예상하면 이들의 정

착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겪는 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정착과 적응에서의 각종 어려움들은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및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착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응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외상 경험, 제3국에서의 장기간 체류, 남북한 문화적 차이, 남한 정착 후 자립의 문제, 실업, 외로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기타 문화 적응 등이 꼽히고 있다.²⁾

미국과 유럽 등 7개 국가로 피난 온 전세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개의 연구들을 검토한 연구에서 전체 난민 중 9% [99% confidence interval(CI) 8~10%]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진단을 받았고, 5%(99% CI 4~6%)가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장애, 물질남용 등의 많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³⁾ 이 연구 결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 인구와 비교시 난민의 PTSD 유병률이 약 10배 높게 나타나, 난민 정신건강에서 PTSD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동독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7%가 우울장애, 29%가 불안장애, 41%가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다른 정신과 질환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재북 및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정신과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⁶⁾에서는 PTSD가 외상척도로 27.37%의 유병률을 보였다. 2007년 입국한 5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담 방식을 이용한 연구²⁾에서는 5.2%가 PTSD, 6.6%가 부분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었고, 약 48%가 우울 및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1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⁷⁾에서는 Symptom Checklist-90-Revision,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에서 신체화(42.4%)와 우울증상(38.9%)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기준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제3국 거주 혹은 남한 지역 사회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는 초진 북한 이탈주민이 연간 약 7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대면 면접을 통하여 PTSD를 평가하여 진단하고, 삶의 질, 사회 적응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방 법

대상 및 절차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06년부

터 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1일까지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설문 및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기준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환자들 중 연구에 대한 구두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경우이고, 배제 기준은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전체 연구 프로토콜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였고, PTSD를 위한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 139명 중 총 69명(49%)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미완성 자료 3건을 제외한 나머지 66명의 응답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North Korean Defectors Checklist, NKDC)

연구진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이나 특성을 반영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North Korean Defectors Checklist 항목은 '연령, 성별, 재북 학력, 소득수준, 재북 직업, 제3국 거주 기간, 공안에 붙잡힌 경험, 교화소 경험, 신체증상, 치료 받고 있는 질환, 북한에 가족 잔류, 가족과 동거, 현재 직장 유무, 남한 생활 어려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간단한 객관식으로 대상자들이 쉽게 답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상 언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차적으로 자기보고형식으로 답변하게 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대면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남한에서의 적응 곤란은 Cho 등⁸⁾ 연구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언어, 생활여건, 사고 방식, 가치관, 차별, 정보 부족, 가족 생각, 무능감, 소속감 부족, 신분 노출 불안, 경제적 어려움) 중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답한 3가지를 객관식화 하였다. 1) 남한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정도, 2)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운 정도, 3) 남한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느낌의 정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4점 척도(1-전혀 없음, 4-매우 어려움)로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임상가를 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척도(The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CAPS)

The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이하 CAPS)⁹⁾은 최근 한 달 이내의 PTSD 증상을 면담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면접 도구이다. 연구자는 대상

자에게 17가지의 PTSD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각 질문은 빈도와 강도로 이루어져 있다. PTSD의 증상 빈도는 0(결코 없었음)부터 4(매일 또는 거의 매일)로 나타나고, 강도는 0(아무 일 없음)부터 4(극심한 정도, 무능력하게 하는 고통,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음)로 나타난다. CAPS 문항은 재경험, 회피와 마비증상, 증가된 각성반응으로 구성되었다. CAPS 유무는 Rule of 2¹⁰ 방법을 이용하였다. Partial PTSD는 PTSD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외상에 의한 영향은 탈북 과정 중에서 겪은 외상으로(공안에 붙잡힌 경험, 복송, 교화소, 또는 구치소에 갇힌 경험)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¹¹⁾는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모두 26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를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외상관련 사건에 대한 빈도분석이 실시되었다. PTSD 진단 유무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성별, 교육 수준, 현재 직업, 공안 체포 유무, 교화소 경험 유무, 북한 내 가족 잔류 유무, 신체질환 유무, 의학적 치료 유무 등 범주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는 카이 제곱(χ^2) 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둘째, 해외 체류 기간, 남한 내 적응 곤란, 삶의 질 등 연속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변인, 삶의 질, 남한 내 적응곤란 등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s)을 실시했는데, 연속변인(예 : 연령, 타국 체류기간 등)에 대해서는 Pearson's r을, 서열변수에 대해서는 Spearman's rho를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인구학적 요인 및 일반적 특성(NKDC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총 66명의 대상자 중 57명(86.4%)이 여자였으며, 연령은 평균 45.00세(± 11.10)였다. 재북 학력은 대부분(56명, 84.8%)이 고등중학

교 졸업 이하였다. 25명(37.9%)의 대상자들이 '공안에 붙잡힌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 중 54명(81.8%)이 '공존 신체 질환'이 있었다. 58명(87.9%)이 '북한에 가족 잔류'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57명(86.4%)이 '현재 무직'이었다. 대상자 모두 북한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과거력은 없었다.

PTSD 유무와 관련 요인

연구 대상자 중 53%인 35명이 PTSD로 진단되었다. 대상자를 PTSD 유무에 따라 두 군(PTSD군, Non-PTSD군)으로 나누고 두 군 간의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35명 중 4명이 탈북 전이나 탈북 과정의 외상 없이 한국에서의 외상(가정 폭력 2명, 직장 내 사고 1명, 불법 수술 1명)으로 PTSD로 진단되었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외상관련 변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공안에 붙잡힌 경험'이 유의성에 접근했다($\chi^2=3.62$, $p=0.05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6)

Variables		Statistics
Gender	Male	9 (13.6%)
	Female	57 (86.4%)
Age (years)		45.00 \pm 11.10 (range=17-72)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 (1.5%)
	High school	55 (83.3%)
	Over college	10 (15.2%)
Duration of defection (months)		40.46 \pm 43.32 (range=0-158)
SES in NK	High	1 (1.5%)
	Middle	52 (78.8%)
	Low	13 (19.7%)
Experience of arrest	Yes	25 (37.9%)
	No	41 (62.1%)
Return to NK	Yes	17 (25.8%)
	No	49 (74.2%)
Defection with companion	Yes	40 (60.6%)
	No	26 (39.4%)
Family in SK	Yes	42 (63.6%)
	No	24 (36.4%)
Family in NK	Yes	58 (87.9%)
	No	8 (12.1%)
Current occupation	Yes	9 (13.6%)
	No	57 (86.4%)
Somatic symptoms	Yes	54 (81.8%)
	No	12 (18.2%)
Medical treatment	Yes	51 (77.3%)
	No	15 (22.7%)
Diagnosis of PTSD	Yes	35 (53.0%)
	No	31 (47.0%)

n : Number of subjects, NK : North Korea,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ES : Socio-economic state, SK : South Korea

Table 2. Correlations among demographic data, difficulty of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in North Korean defectors (n=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Age	1.00														
2. Education	0.254**	1.00													
3. SES in NK	-0.016†	0.323**	1.00†												
4. Duration of defection	-0.121	-0.140†	0.036†	1.00											
5. Language	0.007	-0.130†	0.016†	0.073	1.00										
6. Interaction	-0.043	-0.111†	-0.089†	0.042	0.589†	1.00									
7. Neglect	0.009	-0.041†	0.015†	-0.016	0.450†	0.622†	1.00								
8. Maladjustment	-0.012	-0.110†	-0.014†	0.036	0.785†	0.886†	0.841†	1.00							
9. QOL_overall	0.171	0.016†	0.040†	-0.169	-0.100	-0.273*	-0.214	-0.241	1.00						
10. QOL_health	-0.076	-0.002†	-0.043†	-0.095	-0.072	-0.171	-0.035	-0.112	0.346†	1.00					
11. Physical	-0.076	0.173†	0.000†	0.010	-0.314*	-0.432†	-0.366†	-0.447†	0.383†	0.585†	1.00				
12. Psychological	0.265*	0.218†	0.064†	-0.189	-0.151	-0.348†	-0.452†	-0.391†	0.477†	0.392†	0.541†	1.00			
13. Social	0.103	0.074†	-0.017†	0.012	-0.124	-0.419†	-0.442†	-0.407†	0.405†	0.298*	0.605†	0.626†	1.00		
14. Environmental	0.129	-0.030†	-0.038†	0.146	-0.221	-0.418†	-0.471†	-0.453†	0.408†	0.257*	0.504†	0.504†	0.554†	1.00	
15. Domain total	0.134	0.110†	0.001†	-0.021	-0.238	-0.490†	-0.526†	-0.513†	0.511†	0.467†	0.805†	0.833†	0.872†	0.750†	1.00

Maladjustment=summation of language, interaction, and neglect scores. *: $p < 0.05$, †: $p < 0.001$, ‡: Spearman's rho. n : Number of subjects, NK : North Korea, QOL : Quality of life, SES : Socio-economic state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과 적응관련 요인

상관 분석 결과 연령,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 입국 전 체류 기간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곤란 및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연령과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은 정적 상관이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인 삶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남한에서의 언어 이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 남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혹은 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PTSD와 Non-PTSD군의 삶의 질, 적응 곤란 차이점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군이 Non-PTSD군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일반 $t = -1.993$, $p < 0.05$, 영역총점 $t = -2.630$, $p < 0.05$)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곤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적응곤란 총점 $t = 2.885$, $p < 0.01$)(표 3).

특히 PTSD군에서는 남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혹은 경험은 삶의 질 중 심리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0.527$, $p < 0.01$; $r = -0.383$, $p < 0.05$)(표 4).

고 찰

본 연구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임상군에서 PTSD 진단 비율은 53%로 나와, 남한 정착 지역 사회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률 30%보다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¹²⁾ 이는 중국 체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PTSD 유병률 56%와 매우 비슷한 수치이다.⁵⁾ 각 연구의 진단 도구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과 치료 추구 환자들로 증상의 과장이 있을 수 있는 점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81.8%가 공존 신체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북한 이탈주민의 신체화 경향과 일치한다.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연구¹³⁾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북한이탈주민 85명의 병력지 검토 결과 외래에서 불면 47명(55.3%)과 두통 37명(43.5%)을 주로 호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정신과에 내원하였던 환자의 95%가 타과 진료기록이 있었으며, 56%는 한 번 이상 입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¹³⁾에서는 외래 방문의 지속 비율이 3회 이하

(49.4%)로 지속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표현보다는 신체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특징을 생각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의 경우 외상사건에 대한 보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의 특이적 증상에 대한 보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흔히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겪은 뒤 PTSD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흔히 신체증상을 호소하지만 그 증상이 그들이 겪은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없다고 하였다.⁶⁾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정신과적 평가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상자들이 겪은 탈북 과정 외상 중 '공안에 붙잡힌 경험'이 한계수준에서 PTSD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62, p=0.057$). 이는 공안에 붙잡힌 경험이 순간적이며, 긴장 상태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 잡혀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것 때문이라 추정되고, 발각의 두려움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했던 이전 연구 결과⁶⁾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상의 영향을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만으로 제한하여 조사한 한계점이 있다.

넷째, 상관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남한에서의 언어 이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 남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혹은 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중 남한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던 연구나,¹⁴⁾ 난민의 우울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외상 경험 이후 정착지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밝힌 동남아시아 난민연구결과¹⁵⁻¹⁷⁾와도 일치한다. 한 연구에서는 조사대

자 중 60% 이상이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법 및 제도 등의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남한에서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¹⁸⁾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정착지에서의 스트레스를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평가해 본 결과 단순히 이주 후의 생활 사건이 아닌,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 건강의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국가적인 입장은 난민이나 이민자의 생활 정착과 동일한 차원에서 그들의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 정착에만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¹⁹⁾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뿐 아니라 남한 사회의 적응 과정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PTSD군이 Non-PTSD군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곤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PTSD가 있을 경우, 결혼 만족도가 낮거나,²⁰⁾ 사회 적응 정도가 낮은 것⁹⁾으로 나타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미국의 캄보디아 난민연구¹³⁾에서 이주 전의 외상과 현재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유발하게 되고, 외국의 난민과 이주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의 정착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한다.²¹⁾ 즉, 성별, 직업 유무, 경제 상태 만족도, 입국 특성, PTSD 증상 수준 중 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TSD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불안, 회피, 무기력과 같은 PTSD 증상들이 우울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과 더해지면서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고, 남한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여섯째, PTSD군에서는 남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Table 3. Group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and difficulty of adjustme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Variables	PTSD (n=35)	Non-PTSD (n=31)	t	p
QOL_overall*	2.30±1.07	2.77±0.80	-1.993	0.051
QOL_health	1.97±1.02	2.48±1.06	-1.982	0.052
Physical domain	7.34±2.62	9.00±2.18	-2.736	0.008
Psychological domain	7.94±2.58	9.40±3.14	-2.035	0.046
Social domain	9.37±2.66	10.71±3.49	-1.731	0.088
Environmental domain	9.94±1.78	11.03±2.32	-2.120	0.038
Domain total score	34.59±7.79	40.14±9.05	-2.630	0.011
Language*	2.43±0.85	2.00±0.68	2.268	0.027
Interaction	2.66±0.87	2.06±0.96	2.622	0.011
Neglect	2.66±0.97	2.13±0.92	2.262	0.027
Mal-adjustment total	7.74±2.20	6.19±2.15	2.885	0.005

* : Equal variance not assumed.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QOL : Quality of life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mographic data, difficulty of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in North Korean defectors with PTSD (n=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Age	1														
2. Education	0.164	1													
3. SES in NK	0.004	0.432†	1												
4. Duration of defection	0.172	-0.070	0.120	1											
5. Language	0.176	-0.147	-0.033	0.143	1										
6. Interaction	0.102	-0.052	-0.228	-0.055	0.600†	1									
7. Neglect	0.128	0.028	0.063	-0.027	0.470†	0.449†	1								
8. Maladjustment†	0.164	-0.065	-0.075	0.021	0.831†	0.826†	0.799†	1							
9. QOL_overall	0.162	0.055	0.034	-0.232	0.204	-0.012	-0.182	-0.005	1						
10. QOL_health	-0.199	0.231	-0.011	-0.042	0.192	-0.013	0.019	0.078	0.238	1					
11. Physical	-0.219	0.322	-0.012	0.037	-0.182	-0.311	-0.268	-0.313	0.315	0.631†	1				
12. Psychological	-0.113	0.124	0.101	-0.230	-0.045	-0.190	-0.527†	-0.324	0.554†	0.468†	0.517†	1			
13. Social	-0.167	-0.042	-0.137	0.135	0.047	-0.239	-0.383*	-0.245	0.390*	0.371*	0.607†	0.563†	1		
14. Environmental	-0.011	-0.032	-0.092	0.168	-0.035	-0.308	-0.332	-0.283	0.459†	0.258	0.476†	0.470†	0.534†	1	
15. Domain total	-0.171	0.127	-0.038	0.021	-0.068	-0.319	-0.471†	-0.361*	0.527†	0.553†	0.823†	0.805†	0.853†	0.726†	1

Maladjustment=summation of language, interaction, and neglect scores. *p<0.05, †p<0.001. n : Number of subjects,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ES : Socio-economic state, NK : North Korea, QOL : Quality of Life

혹은 경험이 심리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적 적응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남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혹은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한 연구²²⁾에서 문화적 요인 중 남한 사람들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 무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즉 인구 사회학적 변인이나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 경제적 변인들보다도 북한 내 탈북 과정, 남한 사회 전체를 통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외상 경험이 남한 사회에서의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며, 그 중에서도 남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⁵⁾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대상자를 모집한 병원이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가 있어 일반 다른 병원에 비해 초기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상 정보를 노출하는 데 대해 방어적이라서 탈북 관련 정보나 북에 남아있는 가족 관련 질문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였는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여 치료자와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 담당 의사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연구원에 의한 단순 설문조사보다 믿을만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단면적 연구로 PTSD 위험 변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제3국 거주 탈북자나 남한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러 내원한 북한이탈주민 임상군을 대상으로 PTSD 비율과 삶의 질, 사회적응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북한이탈주민 임상군에서 PTSD 진단율이 높고, 이들은 남한 내 적응 곤란을 겪으며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과적 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북한이탈주민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삶의 질 · 남한 적응 · 난민 정신건강.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2년 국립서울병원의 재원으로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Unikorea.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cited 2014 Apr 28].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8>.
- 2) Kim YH, Jeon WT, Cho YA.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recent migrant North Koreans: a focus on 2007 entrants. *J Korean Unification Policy Stud* 2010;19:141-174.
- 3) Fazel M, Wheeler J, Danesh J. Prevalence of serious mental disorder in 7000 refugees resettled in western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Lancet* 2005;365:1309-1314.
- 4) Bauer M, Priebe S. Psychopathology and long-term adjustment after crises in refugees from East Germany. *Int J Soc Psychiatry* 1994;40:165-176.
- 5) Lee Y, Lee MK, Chun KH, Lee YK, Yoon SJ.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 J Prev Med* 2001;20:225-229.
- 6) Kang SR. Development of trauma scale for North Korean refugee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2006.
- 7) Kim HH, Lee YJ, Kim HK, Kim JE, Kim SJ, Bae SM, et 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sychiatric symptoms in North Korean defectors. *Psychiatry Investig* 2011;8:179-185.
- 8) Cho YA, Kim YH, You S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over 7 years.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9;21:329-348.
- 9) Weathers FW, Keane TM, Davidson JR.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a review of the first ten years of research. *Depress Anxiety* 2001;13:132-156.
- 10) Blanchard EB, Hickling EJ, Taylor AE, Fomeris CA, Loos W, Jaccard J. Effects of varying scoring rules of the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CAPS) for the diagno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Behav Res Ther* 1995;33:471-475.
- 11) Min SK, Lee CI, Kim KI, Suh SY, Kim DK.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0;39:571-579.
- 12) Jeon W, Hong C, Lee C, Kim DK, Han M, Min S. Cor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 Trauma Stress* 2005;18:147-154.
- 13) Kang HY, Byeon SH, Shin SH, Kim HC, Lee SH, Yoo SY. A study of psychiatric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visited a psychiatric clinic. *Sleep Med Psychophysiol* 2012;19:35-41.
- 14) Cho YA, Jeon WT, Yu JJ, Um J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year follow-up study.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5;17:467-484.
- 15) Blair RG.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and major depression among Cambodian refugees in Utah. *Health Soc Work* 2000;25:23-30.
- 16) Fenta H, Hyman I, Noh S.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J Nerv Ment Dis* 2004;192:363-372.
- 17) Shalev AY, Freedman S, Peri T, Brandes D, Sahar T, Orr SP, et al. Prospective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following trauma. *Am J Psychiatry* 1998;155:630-637.
- 18) Kim JY, Choi JH, Ryou WJ. Impact of PTSD 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Korean J Welf Stud* 2012;43:343-367.
- 19) Park SS. A study on the life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status of saeteomins in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2006.
- 20) Lee SY. Correlations between traumatic experi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scale of an escapee from north Korea: centered on dwelling in North Korea, escaping from North Korea, adapting to South Korea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2006.
- 21) Keyes EF. Mental health status in refugees: an integrative review of current research. *Issues Ment Health Nurs* 2000;21:397-410.
- 22) Lee JM, Hwang SY.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oc Welf Policy* 2008;33:61-84.